

李退溪의 教育思想**

—특히 그 言行錄을 읽고서—

渡 部 學*

• 目 次 •

I. 序 論	IV. 「讀書」 修學의 要
II. 任憲晦의 「五賢粹言」	V. 心得躬行의 學
III. 「學問」의 根本義	VI. 結 論

I. 序 論

교육사상은 그것이 관념체계로서 존립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항상 그것과 연관이 맺어져 있는 教育實動態와의 關聯相下에 있다. 따라서 어떤 교육사상은 그 사상의 현실적인 타당면으로부터의 고찰을 불가피하게 한다. 즉 사상을 사상 그 자체만으로서 괴리시키지 않고 그것에 관련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하는 현실의 全事態 속에서 고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서 지금까지

(1) 陶山 현지에 있어서 퇴계 선생의 교육의 실제 활동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파악을 고찰하고 (1976. 5)

(2) 다음에 陶山書院所藏文書에 의해서 퇴계 선생의 교육의 실제 활동의 實態化로서의 도산서원에 의한 在鄉儒士의 講會 활동의 구조를 추

* 武藏대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1978) 게재논문

구하고(同前. 6)

(3) 進溪朴在馨先生撰 「陶山至言」에 의한 퇴계사상의 19세기적 부활상에 관해서 탐구하고(1977. 8)

(4) 곤란을 極한 조선조 국가의 「보국안민」을 위한 對「外」對處下에 있어서의 「내」적인 발전으로서의 퇴계사상의 의미를 고찰(1977. 11) 하여 왔다.

이 기회에 퇴계 선생의 교육 사상을 19세기적인 현실적인 타당성 하에 서이기는 하지만, 존립하는 관념적 체계 그 자체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任憲晦의 「五賢粹言」

퇴계 사상의 19세기 전개의 한 형태로서 壺山 任憲晦(1811~1876)가撰한 「五賢粹言」이 있다. 그는 大司憲祭酒에까지 승진된 조선조 말기 名臣(內大臣追贈, 諡文敬)의 한 사람이요 溪湖 金元行의 門人인 朴胤源 및 尤菴선생의 6대손 宋釋圭에 師事한 사람이므로 퇴계 선생의 학통에 설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以 靜菴之材志
有 退溪之德學
契 栗谷之理氣
循 沙溪之禮教
立 尤菴之義理

의 다섯가지를 달성하면 「可謂幾乎聖者」(田良齋跋文)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선조의 대표적인 五人의 賢者의 통찰에 풍부한 이야기를 拔粹集錄하여 이 「五賢粹言」을 撰하였다.

◆ 『五賢粹言』各章別收錄條數表

卷	章 題	條 數	內退溪	內栗谷	內(尤菴)
1	道體	38	10	15	11
2	爲學大要	69	24	23	14
3	格物窮理	(33)43	17	13	11
4	存養	(45)44	17	13	10
5	改過遷善克己復禮	28	6	10	5
6	齊家之道	(20)16	7	8	0
7	出處遷退辭受之義	(42)41	11	17	8
8	治國平天下之道	44	3	19	8
9	制度	30	4	12	7
10	君子處事之方	53	7	23	15
11	教學之道	14	3	4	4
12	改過及人心疵病	(39)30	11	12	0
13	異端之學	(12)9	3	3	3
14	聖賢氣象	24	3	10	5
計		(491)483	126	182	101
		100.0%	26.1%	37.7%	20.9%

備考

1. 條數欄中 괄호 내는 本書各章題下記載의 條數를 표시함
2. 尤菴관계 條數는 참고로서 揭記함
3. 또한 위 표기 이외의 것은 靜菴55조 沙溪17조 기타가 2조임

전14권 14장으로 구성되어서 함께 483조가 그 가운데 수록되어 있다.(다만 필자 소장의 복사판본에는 各章題下揭記의 條數 합계는 491조이나 실제로 게재된 條數 합계는 483조로서 약간의 異同이 있다.)

이제 여기에 同書 수록의 各章題別 揭出條數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퇴계·율곡 양선생의 말을 揭出한 條數와를 비교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據筆者藏本).

위 표를 一見하고 알 수 있는 것은

一, 전체적으로 율곡 선생에게 많은 條數가 배정되고 우암 선생의 語條數를 가하면 이 학통에 의한 비중이 가하여지고 있다. 沙溪관계 條數 17조를 보태면 율곡, 우암, 사계의 합계 300조로서 전체의 62.1%를 점하고 있다.

二, 爲學大要·齊家之道·教學之道·異端之學의 각장은 退栗이 대략 同數며 爲學大要章은 양자가 공히 현저하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三, 道體·出處進退辭受之義·治國平天下·制度·君子處事之方·聖賢氣象의 각장은 율곡의 편이 매우 많다.

四, 格物窮理·存養章은 퇴계의 편이 약간 많다.

이것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치국·제도·처사 등 「經世(致用)」적인 분야에 관해서는 栗·尤에게 보다 많은 條數가 배정되고 그 비중 또는 條數의 양은 퇴계에 비해서 매우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 爲學大要·齊家之道·教學之道·異端之學의 장은 退栗이 비슷하다. 말하자면 栗·尤학통에 선 鼓山 선생마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퇴계 선생의 사상에 크게 기울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教學齊家에 관해서는 그 절반을 자신의 학통 외의 퇴계 선생의 말씀에서 모범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세기 栗·尤學統 學人인 任憲晦가 크게 그 모범을 취한 퇴계 선생의 교학사상은 그 관념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었던가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 우선 제일의 착수로서 『退溪先生言行錄』 중의 「學問」·「讀書」·「教人」의 가장 教學에 관계가 깊은 3장의 각 조에 顯示된 퇴계 선생의 교육사상을 부각시켜 볼까 한다.

Ⅲ. 「學問」의 根本義

우선 제일 먼저 『退溪先生言行錄』¹⁾ 권1 類編 「학문」장은 전19조로

1) 『補增退溪全書 四』(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71)에는 「退陶先生言行通錄」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花山本의 이 通錄(肅宗 33, 1707)을 剛正·補成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우주·인생의 근본에 대한 깊은 통찰에 충만되어 있다.

퇴계 선생은 12세 때에 이미 「理」란 「凡事物之當然者」(退溪先生言行錄)「凡事之是者」라고 갈파하여 李松齋 선생을 놀라게 하였고 또 같은 「少時」 燕谷에 노닌 퇴계 선생의 作詩 중에 「雲飛鳥過元相管」(「학문」장제3조)라고 읊었다. 여기에 대한 金富倫의 평에는 「天理流行而恐人欲間之(섞인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고 阿部吉雄 박사는 이 김부윤 평에 다시 평을 보태어서

그와 같이 도학자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이것을 味讀하면 高深淸澄의 叙景詩이며 그가 젊어서부터 비범한 詩才를 가졌었던 것을 알 수 있다.(阿部吉雄著 『이퇴계 -그 행동과 사상-』 評論社, 동경 1977년 63페이지)

라고 평하고 있다. 이 阿部박사의 지적은 물론 적절한 것이기는 하지만 他面 그 유명한 유치원의 창시자 프레벨(F.W.A. Fröbel 1782~1852)도 그가 어렸을 때 이러한 체험, 즉 一見 잡다하게 보이는 일상적 諸현상 그 속에 천지우주를 통하는 객관적 보편적인 근본법칙 즉 진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하는 직관을 얻었다는 것을 그의 「自傳」²⁾ 중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元相管」(본래 相管한다) 즉 雲飛鳥過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전혀 각각의 일상적 현상도 「그 근원은 하나로서 공통으로 상호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天理流行」의 근본을 인육을 섞지 아니하고 통찰, 파악하기 위해서는 「隨時隨處觀者體驗」이 근본적 방법이고(제5조) 오히려 「超然獨得」(제6조)에 이것을 「沈潛反復自然心會」(제8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것이야말

한 것이 「퇴계선생언행록」이라고 하므로(李家源博士解題) 본 연구에서는 그 언행록본에 의거하였다. 다만 언행통록도 참조하였고 또 韓國名著大全集 『퇴계집』 중에 채집되어 있는 언행통록의 張基權氏 현대어譯도 참고를 하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2) 岩波文庫 『프레-벨自傳』

로 바로 「洞見大原植立大本」의 출발점이요 그 점에 있어서 비로소 「敬義夾持 知行並進 表裏如一 本末兼舉」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제12조) 위와 같은 근본적 통찰을 인욕이 섞임을 배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莊敬持養」(제13조) 「傲省之美」(제15조)를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觀省體驗」 직관에 의한 「大原」의 「洞見」인식과 「莊敬」「傲省」의 心術 즉 「居處恭執 事敬」(제16조)의 평이명백한 「處用工夫」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다.

IV. 「讀書」 修學의 要

퇴계 선생은 유학의 전통에 기본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立志」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教人」장 제15·29·30조). 그러나 金睟(夢村, 1537~1615)의 「學者之初 何者爲先」이라는 물음에 대하여 퇴계 선생은

先生曰 立志爲先 然觀其所志者何事(「教人」章 第30條)

라고 대답하고 있다. 즉 다만 추상적인 입지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志를 세운다고 하면 그 방향 즉 방향 법칙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其所志者」는 무엇이어야 할까. 퇴계 선생은 朱子書を 정독하였는데 酷暑夏節에도 「講此書便覺胸膈生涼 自不知其暑」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又曰 人能讀此朱子 則可知爲學之方 既知其方 則必且感奮興起 終此積習既久 然後回看四書 則聖賢之言將節節有味 於身上方有受用處 金誠一(「讀書章」 제3조) 방점 필자

라고 말하였다. 즉 立志의 充實達成은 朱子書에 의해서 「方」을 확립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方」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이념 향방으로서의 방향 법칙성³⁾을 가리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인생의 보편적 근원의 인식인 것이요, 단순한 훈고학적 유학多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퇴계 선생은 李德弘이 처음으로 學에 뜻을 두었을 무렵 「啓蒙」을 공부하고자 희망했으나 선생은 「君第讀四書」(「敎人」장 제5조)를 가르치고 성급하게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즉 四書を 독서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朱子書는 어디서 읽는가 하면 前出된 바와 같이 「知爲學之方」하고 「感奮興起」하여 「做工積習既久」, 「然後」에 四書を 「回看」하면 味讀할 수가 있어서 身上수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四書を 읽고 다음에 朱子書를 읽어서 「爲學之方」을 체득한 뒤에 다시 한 번 되돌아와서 四書を 「回看」(회간 論者註)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선생은 「독서」장 제1조에서도

既得新知 又必溫故 一卷既畢 通誦一卷 二卷既畢亦通誦二卷…….

라고 교시하고 있다. 「回看」은 각각의 독서에 의한 「既得新知」의 단계를 지난 뒤에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立志 → 「方」 認知 → 回看

3) 방향법칙성이라는 용어는 K.F.Sturm의 「일반교육과학」(1927) 중에서의 「교육」의 「自領的 개념」(Einheimischer Begriff)의 一內包며 교육은 陶冶 특히 가치론적 도야에 향해서 인간변화로서의 작용이라는 교육 제1定義의 중심개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을 성립시키는 법칙적 방향은 퇴계 선생이 말하는 「方」에 상응하는 것이고 양자의 이론 구성에는 공통되는 것이 상당히 있다. 다만 독일교육 과학과의 이론에는 「活看」요인은 오히려 희박한 것이다.

渡部學 「현대의 교육과학(I)-敎學의 구조형태-」(『東北學院大學 論集』, 1949, 仙臺), 同 「현대의 교육과학(II)-교육과학의 이론내용-」(『東北學院大學論集』, 1950, 仙臺) K.F.Sturm Erziehungswissenschaft 1927. S. 11 및 K.F. Sturm ; Erziehungswissenschaft der Gegenwart 1930 S.47- 59 참조

이라고 하는 교육의 역동적 구조의 제1相을 교시한 셈이 된다.

선생은 「小學」은 「體用具備」의 書요 『近思錄』은 「義理精微」의 書며 『心經』은 「初學用工之地」격인 書라고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도 「以余觀之 無踰於朱子書」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데 이르러는 학습자의 자질과 병통이 萬不同이므로

因材施教 對證下藥 (「讀書」장 제5조)

을 취지로 삼았다. 개성에 적합한 교육 방법의 깊은 자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측에서 말하면 「親切的當」(제8조)임을 지적하고 있다.

初學入門之書를 당시 「小學」으로 삼아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퇴계 선생은 이 「體用具備」의 書인 소학을 마치 「修正基址」와 같은 것으로 가옥에 비유하면 「備其材木」인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大學」은 「大廈千萬間」과 같은 것으로서 「結構於基址」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讀書」 제22조) 이것들의 경우에도 「潛求默玩」(제14조) 「止是熟」(제12조)을 힘쓰고

書之所讀 夜必思繹(「讀書」章 제15조)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回看」의 구체상을 지적한 것일 것이다.

V. 心得躬行的 學

퇴계 선생은 「爲己之學」과 「爲人之學」과를 峻別하고 계시다. 즉,

「爲己之學」

以道理爲吾人之所當知

(以)德行爲吾人之所當行
 近裏著工 期 心得
 而者 是也
 躬行

그리고 이에 대해서

「爲人之學」
 不務 心得
 躬行 而飾虛徇外
 以求名取譽者是也

라 하고 계시다(「教人」장 제11조).

「道理」를 「알」고 「德行」을 「행」하는 일은 吾人の 「장차 해야 할」 바이며 이 양자가 분열, 괴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양자 일체의 착수점은 「近裏著工」이며 일상 생활의 가까운 일로부터 도리를 「心得」하고 이것을 「躬行」하는 곳에 진실한 「爲己」의 學이 있다. 그것을 게을리하고 걸치레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를 구하는 일에만 전심하는 것은 「己」를 공허하게 한 「爲人」의 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心得而躬行」을 위한 근본을 「爲先主敬」(「教人」 제1조)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는 後學에 대해서는 봉우처럼 하여 「不以師道自處」함이 긴요하며 퇴계 선생은 이것을 스스로 실행하신(金誠一)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도는 어려운 것이며, 특히 「性理大典」 등은 그 「義理精微」하여 初學者는 「猝難領解」하다. (「教人」 제3조) 따라서 「下學上達」이라고 하더라도 「學者習久無得」에 빠져서 「至中廢」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指示本源」에 힘써(「教人」 제4조) 諄諄誘掖(제1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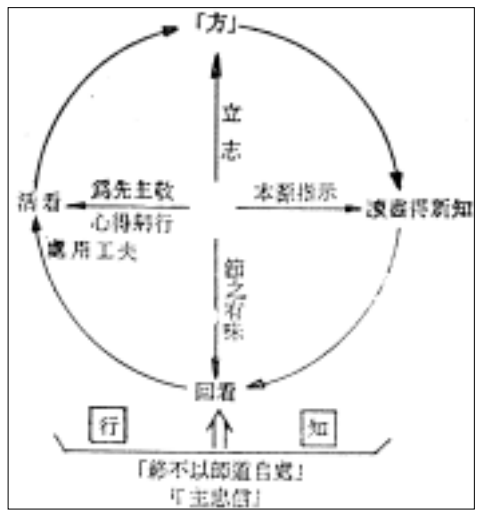
이와 같은 「爲先主敬」에 의한 「諄諄誘掖」에는

必以忠信·篤實·謙虛·恭遜(「教人」 제31조)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퇴계 선생의 教人은 이와 같이 자신을 교사로서 우선 설정하고 가르쳐 준다는 소위 instructional situation을 유지함이 없이 「主忠信(論語)의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心得而躬行」하면서 부단히 「本原」의 지시를 통해서 誘掖하여 학습자의 방향 범칙성을 자극해 가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었다.

그런데 「心得而躬行」의 이 요령과 궁행은 어떻게 해서 연결이 가능하가 하면 「立志→『方』認知→回看」, 事態下에 성현의 말씀이 「節節有味」(「讀書」 제3조)와 같이 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於身上方有受用處」로 되어 「平易明白 處用工夫」의 境域에 도달한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궁행」에로 연결이 되어진다. 한국에는 「活看」(활간 論者註)이라는 매우 함축 깊은 용어법이 있는데 이상과 같이 일체화한 「心得而躬行」은 바로 이 「活看」의 경지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온 바 퇴계 선생의 교육사상은 위와 같이 圖示할 수 있는 역동적 圓環구조로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VI. 結 論

세상에는 「以師道自處」하고 「爲人之學」을 가르치는 교육이 많다. 교사 자신이 「儆省之實」을 지키고 「主忠信」을 요지로 해서 오히려 일보 후퇴하여 心得躬行을 거듭하면서 「因材施教」, 「對證」의 「本源指示」를 기본 원리로 하는 퇴계 선생의 교육 지도의 실태는 丙寅(명종 21, 서역 1566)年, 內弟 尹剛中이 朱書講學을 위해서 來陶, 수개월 후 安東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그의 부친인 안동부사 尹杏堂公에 보낸 퇴계 선생 自詩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

朱門博約兩工程
百聖淵源到此明
珍重手書留至教
精微心法發群英
嗟余竭力空頭白
感子收功已汗青
更遣諸郎詢瞥見
病中深覺負仁情

朱門은 博約의 兩工程이오(文과 禮)

百聖의 연원이 이이에 이르러 분명하도다.

진중한 手書는 至教를 留하며

정미한 심법이 群英을 발하니

아—내 있는 힘을 다하여 헛되이 머리는 희어지고

느끼노니 그대의 功을 거뭇이 汗青(?)이라

다시 諸郎을 보내어 瞥見을 묻노니

병중에 깊이 仁情에 힘입음을 깨닫노라

여기에서 尹剛中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師道自處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朱門의 精微한 心法이 「群英을 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 정 동 譯)